



A Study on the Media Use and Perception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ing on Students Group

Jae-Hyeon An*

Department of Broadcasting & Film, Chungwoon University

A B S T R A C T

South Korea is already positioning itself as the world-class IT power through rapid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government's policy. Internet use by young people is increasing rapidly. Internet usage is a situation that is close to 100%. Internet use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ut has a serious problem, such as a social privacy, hacking and viruses etc.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by use of the Internet frequency increase is desired the way, b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media-user, among other things,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prot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bout informations use and Informations recognition of media users and to propose appropriate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ze, respondents should like to disclose others personal information - Date of birth, education, experience, current membership, activities and publishing information(text, photos, videos, etc.), but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did not want to be released. We don't want our own privacy to be released. But we wonder other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ot unrelated with voyeurism of our society. There is a controversy for generalizing this results of the research. Because We were supposed to investigate a university student organization. There is meaning at point of group's result, which utilizes the media well and using media. We expand the subject of research in subsequent studies. In following research, will analyze whether there is difference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application and awareness according to an age. So, the customiz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ducation wishes to be accomplished.

© 2017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Mobile media use, Informati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RTICLE INFO: Received 23 December 2016, Revised 20 January 2017, Accepted 10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Broadcasting & Film, Chungwoon University, 25 Daehak

gil, Hongsung-Gun, Chungnam, 32244, KOREA.
E-mail address: jahan@chungwoon.ac.kr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손가락 끝으로 요리하는 정보화 시대가 현실화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으며 또한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콘텐츠 융합의 결과를 창조하였다. 문자, 음성,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시대가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디지털 융합 현상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융합, 서비스 융합 및 사회적 융합으로 진화되고 있다. 디지털 융합 환경은 지금까지의 미디어가 이용되고 수용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용되고 수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는 멀티미디어에 적합한 기능을 습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의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되고 통합되면서 이용자의 편리성만 강조되고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휴대용 단말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대중화됨으로써 정보의 습득과 이용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의 정보유출 또한 용이해 졌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는 ‘정보보호’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따르면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3, 4, 5].

2. 본론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융합의 유형에는 사업자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미디어의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개인 정보의 가치가 더불어 중요하고 상업화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디어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가치가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상업적인 가치와 공익적인 가치를 모두 의미한다.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5]. 그러나 정보의 가치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도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화 역기능 해소가 대두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구축을 위해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면의 통제가 요구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과 보호 통제가 필요하다 [6, 7].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 정보 침해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KISA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95.4%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45.9%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

기존의 정보보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개인 정보보호 인식 실태[9],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요인[10], 초등학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11], SNS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12], 인터넷 자율 규제 의 법적 의의[13],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인식[14],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효과 및 인과관계[15] 등이었다. 미디어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 및 수용태도를 파악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디어 이용행태와 온라인상에서 활동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정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2.1 조사의 일반적인 현황

본 연구는 대학재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실하게 응답한 276개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157명(56.9%)이었으며 여성은 119명(43.1%)이었다.

2.2 미디어 이용 행태

응답자의 94%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로 휴대전화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유선인터넷(89%)과 CATV(73%)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는 IPTV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MB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1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2시간 미만(64.5%)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0명 중 3명은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폰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SNS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휴대폰의 본래의 기능인 타인과의 음성통화를 이용목적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10%에 불과하다.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표1]에서와 같이 개인미디어에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의 UCC 등 창작물 게재한다는 응답(2.71)과 인터넷 게시판에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의 UCC 등 창작물 게재(2.65)한다는 응답자의 평균이 높게 나왔지만, 이 또한 보통(3.0)이하의 결과గా 나와 응답자들은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정도
Table 1. Activity at on-line

유형	평균
정당(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1.37
정당(정치인)의 SNS 방문/이용	1.53
상품에 대한 폼평이나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2.04
상품에 대한 폼평이나 의견을 개인 미디어에 게시	2.16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1.75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인미디어에 게시	1.71
사진, UCC 등 창작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	2.65
사진, UCC 등 창작물을 개인미디어에 게재	2.71

스마트폰 사용 이후 변화된 일상의 모습[표 2]으로 ‘다양한 콘텐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UCC 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스마트 폰으로 이용자들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적극적인 이용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었다’는 항목의 평균이 2.65라는 의미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가 보통이하 즉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트 폰 이용으로 다양한 콘텐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정보에 속은 적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변화
Table 2. Change by smart phone use

스마트폰이용으로 변화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의 생각 및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3.16	.987	22.833	.000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3.33	.973	24.466	.000
다양한 콘텐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4.35	.658	47.245	.000
UCC 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3.51	.967	25.923	.000
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	3.24	.992	23.297	.000
거짓 인터넷 정보에 속게 되었다	3.39	1.097	22.085	.000
상업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었다	3.00	1.000	21.424	.000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2.65	.890	21.229	.000

2.3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보았느냐와 알고 있는 가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일표본통계량을 검증한 결과 [표3]과 같이 전자의 평균은 3.20이며, 후자의 경우는 1.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디어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어는 보았지만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Table 3. Awareness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검정값=0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들어보았다	11.96	.000	3.196	2.66	3.73
알고있다	6.49	.000	1.725	1.19	2.26

타인의 정보를 한번쯤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친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6.7%이며 본인의 초, 중, 고등학교 동창과 커뮤니티에 소속된 내 친구 혹은 이웃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66.7%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 혹은 연락이 끊긴 사람에 대한 검색 비율도 67.4%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정보 검색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검색 보다는 주변 친분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정보를 적극 검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정보 중에서 찾아본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사진과 프로필에 대

한 정보를 검색한 비율이 각각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소와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확인한 경우가 51.0%이었으며,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는 응답자도 49%로 조사되었다.

표 4. 타인의 정보 검색(단위: %)
Table 4. Information search about others

	예	아니오	기타
가족	33.3	56.9	9.8
친구	66.7	27.5	5.9
커뮤니티 소속된 친구, 이웃	45.1	49.0	5.9
데이트 중인 이성 친구	47.1	47.1	5.8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	67.4	25.5	7.8
처음 만난 사람	43.1	51.0	5.9

응답자들은 공인에 대한 정보를 활동정보(34%), 학력, 경력, 현 소속 등 프로필(23%), 생년월일과 같은 신상정보(13%), 연락처(11%), 기타(19%)의 순으로 검색하였다. 그러나 주변인에 대한 검색에서는 생년월일과 같은 신상정보(36%), 연락처(24%), 학력, 경력, 현 소속 등 프로필(18%), 게재정보(글, 사진, 동영상 등 12%), 기타(10%)의 순으로 검색하였다. 개인정보 검색 대상은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인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인물은 공인에 비해 활동이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상정보와 연락처 등 개인적인 정보를 검색하였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공인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검색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사인의 경우는 사진을 비롯하여 이메일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도 검색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연예인을 비롯하여 공인의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9.7%로 조사되었다. 주변

인물에 대한 검색도 응답자의 15%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에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 83.6%를 차지하였지만 연예인,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커뮤니티타인의 정보도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버)에서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재정보에 대한 공개(72.6%)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부분 비공개를 원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발적 공개보다 비공개의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개인연락처(56.9%), 서핑이나 구매 등에 관한 이력정보(58.8%), 접속여부 및 현 위치 등과 같은 활동정보(58.8%)이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도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은 항목은 신상정보(52.1%), 학력이나 경력 등 프로필(54.9%), 개인인맥 등 사회적 정보(52.9%)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능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의외로 모든 항목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공개가능하다는 자발적 공개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사이트별 정보공개 정도(단위: %)
Table 5.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site

항목	정보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비공개	자발적 공개	비공개	자발적 공개
신상정보(생년월일 등)	43.1	52.1	21.6	74.5
개인 연락처	56.9	43.1	43.1	56.9
프로필	43.1	54.9	19.6	76.5
글, 사진, 등 게재정보	27.5	70.6	15.7	82.4
서핑, 구매 등 이력정보	58.8	39.2	43.1	56.9
개인 인맥 등 사회적 정보	45.1	52.9	31.4	66.2
접속 여부, 현 위치 등	58.8	41.2	45.1	52.9

특히 개인연락처(56.9%), 서핑이나 구매 등에 관한 이력정보(56.9%), 접속여부 및 현 위치 등과 같은 활동정보(52.9%) 항목들이 포털사이트에서는 비공개를 위한 항목들이었지만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자발적 공개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털사이트와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이 염려되지만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제한된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SNS를 통해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5%가 ‘내가 현재 위치한 곳의 맛 집, 버스 운행 정보 등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노출은 감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5%는 ‘나의 위치정보 등 일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신변적, 경제적 위험이 우려되므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는 가급적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상정보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응답자가 72.5%로 압도적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감으로 이해된다.

2.4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정도와 정보 보호 인식

온라인상에서 활동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먼저 활동 정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활동이 많은 고 활동자는 저 활동자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당(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활동자일수록 개인정보보다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활동 정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인지의 상관관계(평균)
Table 6. Interrelation with activity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정당(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70	3.22
2	1.50	2.70
3(보통)	2.67	4.33
4	2.00	4.00
5(적극적)	0.00	0.00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76	3.32
2	1.75	2.56
3(보통)	1.38	3.75
4	2.50	4.50
5(적극적)	0.00	0.00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인미디어에 게시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52	3.24
2	1.71	2.59
3(보통)	2.38	4.25
4	2.00	4.00
5(적극적)	0.00	0.00
사진, UCC 등 창작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50	3.38
2	1.47	3.12
3(보통)	1.92	3.38
4	2.00	4.64
5(적극적)	2.00	4.00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정도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활동자일수록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지도도 높게 나왔으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 활동자이든 적극적 활동자인 듯 관계없이 대체로 잘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UCC 등 창작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들은 소극적 활동자이든 적극적 활동자이든 관계없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대체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활동정도와 상관없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3. 결 론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즉 정보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가치에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자유로운 정보전달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획득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침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용이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의 오용, 목적이외의 사용, 개인정보 유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정보 노출이 아니라 정보사회에서는 경제적 재산적 피해를 유

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와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 및 수용태도를 파악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스마트 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스마트 폰 사용 이후 변화된 일상의 모습으로는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디어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한번쯤 들어 보았지만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는 신상정보(생년월일, 키 등), 프로필(학력, 경력, 현 소속 등), 사회적 정보(인맥 등), 활동정보 및 게재정보(글, 사진, 동영상 등) 등을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는 허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관음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본인의 정보는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의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온라인상에서 활동이 많은 고 활동자는 저 활동자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폰 사용 이후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 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미디어 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집체교육이나 PC 환경에서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미디어를 가장 활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집단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령별 개인정보 활용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길 희망한다.

References

- [1] T. W. Kim, *Information society and legal protec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Political Information Research, Vol. 6, No. 2, pp. 1-21, 2003.
- [2] Y. J. Jung, *An analysis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from a point of informatization promoting organizational system view*,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3, No. 1, 2007.
- [3] H. R. Oh, S. S. Oh, S. Kim, and H. R. Yeum, *Information protection Pyojunhwahangmok justice and roadmap*,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15, No. 5, pp. 67-82, 2005.
- [4] D. H. Bang, *A study on Systematiz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Laws with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sm*, Public Law, Vol. 41, No. 2, 2012.
- [5] D. K. Jung, *Comparative study of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 Privacy information basic laws and dedicated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2, No. 4, pp. 923-939, 2012.
- [6] J. R. Yo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igital era - review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9, No. 6, 2011.
- [7] M. Y. Lee, *A revisory study on the legislations related to personal data protection*, Journal of Law, Vol. 23, No. 2, 2012.
- [8]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A Survey on Data Protection*. Seoul, 2013.
- [9] J. G.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awareness of privacy*, Daejeon 2002.
- [10] S. R. Kim and K. C. Rhee, *Potential consequences of online privacy invasion and their affecting factor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Vol. 10, No. 1, pp. 1-27, 2007.
- [11] K. C. Lee, *Analysis on the awareness of the privacy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5.
- [12] J. S. Huh, *A study on the problem of SNS'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countermeasures*,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Vol. 9, No. 2, pp. 75-103, 2010.
- [13] M. Y. LEE, *Jurisprudential significance of internet self-regulation*, Justice, Vol. 1, No.16. 2010. pp.133-160, 2010.
- [14] I. Kim, *Consumer perception on using personal information in big data*

environ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15] I. S. Shin, *Effects and causality of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 Empirical studies on firm and individual behavior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6, No. 2. pp. 523-531, 2016.

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상대로 조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집단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령별 개인정보 활용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길 희망한다.

미디어이용행태와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안재현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요 약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으로 인해 세계최고 수준의 IT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보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해킹, 바이러스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디어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정도가 정보활용 및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 타인의 개인정보는 신상정보(생년월일, 키 등), 프로필(학력, 경력, 현 소속 등), 사회적 정보(인맥 등), 활동정보 및 계재정보(글, 사진, 동영상 등) 등을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는 허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관음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본인의 정보는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의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6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지원으로 연구하였음



Jae-Hyeon An received the bachelo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Germany Language & Literature from the SoongSil University in 1987. He receive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from Westfaelische Wilhelms-Universitaet(Germany) in 1997. 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Broadcasting & Film at Chungwoon University since 2008.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mmunication, culture contents & Broadcasting. He is a member of the KKITS.

E-mail address: jahan@chungwoon.ac.kr